



몰랐던, 이제 알아야 하는

정답과 해설

중학 국어
어휘 1 단계

1 비문학(읽기·쓰기)

Day 01 어휘 플러스

본문 13쪽

1 해학 2 풍자

10 분 테스트

본문 14쪽

- | | | | |
|----------|---------|-------|-------|
| 01 다큐멘터리 | 02 정체성 | 03 기호 | 04 문화 |
| 05 방식 | 06 문화유산 | 07 소통 | 08 표현 |
| 09 형상 | 10 전통 | 11 ⑤ | |

09 ‘해안가에서는 파도의 압력에 깎인 기이하고 묘한 생김새의 바위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므로 ‘형상’이 적절하다. 또한 ‘생각이나 느낌 같은 구체성이 없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형상’이라 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형상’이다.

11 <보기>에서는 ‘부조리한 것, 부당한 권위, 비논리 등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놀리듯이 표현하는 방법’인 풍자가 잘 드러나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⑦은 ‘풍자’, ⑧은 ‘부조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무능’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없음.’의 의미이고, ‘사치’는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의 의미이다. ‘부정’은 ‘옳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의 의미이다.

04 그 보석은 정교하게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졌거나 질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므로, ‘가공’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5 개인의 재산권은 ‘민법’의 범주이므로 민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6 민주적이지 않은 다스림 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므로, ‘통치’가 적절하다.

07 시스템이 전체 작업 단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공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보고서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여론 조사 기관의 통계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공신력’이 적절하다.

11 실질적인 쓸모, 만족감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므로, ‘효용’이 적절하다.

12 물품을 ‘구매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구입하다’이다.

13 ‘상거래’는 ‘상업상의 거래’를 의미한다.

| 오답 확인 |

②, ③ ⑥의 ‘결제’는 ‘대금 결제 전에 특정 팝업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라는 문장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⑤ ⑦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문맥상 ⑦의 ‘규정’은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하다.’의 의미가 적절하다.

Day 02 어휘 플러스

본문 17쪽

1 규정 2 규율

10 분 테스트

본문 18쪽

- | | | | |
|--------|---------|-------|-------|
| 01 속도 | 02 깨끗하게 | 03 신뢰 | 04 가공 |
| 05 민법 | 06 통치 | 07 공정 | 08 납부 |
| 09 효율적 | 10 공신력 | 11 효용 | 12 ① |
| 13 ① | | | |

Day 03 어휘 플러스

본문 21쪽

1 갈음 2 기능 3 가름

10 분 테스트

본문 22쪽

- | | | | |
|--------|---------|--------|--------|
| 01 인식 | 02 선입견 | 03 융통성 | 04 의식적 |
| 05 단정적 | 06 갈음하다 | 07 편견 | 08 ① |
| 09 ② | 10 ② | 11 ② | |

04 그는 인식하거나 자각하면서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었다는 의미이므로 ‘의식적’이 적절하다.

05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단정적’이 적절하다.

07 ‘고정 관념’은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의 의미이다.

08 대화를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하며 이끌어 나갔다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되는 뜻의 단어는 ‘수동적’이다. ‘수동적’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 오답 확인 |

② ‘의식적’은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자각하면서 일부러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09 해석이 지나치게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되는 뜻의 단어는 ‘객관적’이다. ‘객관적’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 오답 확인 |

① ‘독단적’은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10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나아가 행하는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되는 뜻의 단어는 ‘강제적’이다. ‘강제적’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 오답 확인 |

① ‘자주적’은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11 희준이 마음속에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요하고 쓸쓸한 느낌이나 마음.’의 의미인 ‘적막감’이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①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③ 자긍심: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

④ 효용감: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벌인 결과로 그 쓰임새에 만족할 때 느끼는 감정.

⑤ 자부심: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Day 04 어휘 플러스

본문 25쪽

1 지향하는

2 지양해야

10 분 테스트

본문 26쪽

01 관념

02 차별

03 ④, 선호한다

04 ①, 대응하는

05 ②, 경계해야

06 ④, 우선시한다

07 왜곡하면

08 소외된

09 ①

10 ③

11 ⑤

12 ③

09 폭력을 두둔하고 편들어 지키고자 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편들어 감싸 주거나 역성을 들어 줄’의 의미인 ① ‘두둔할’이 적절하다.

10 ‘모호하다’는 ‘말이나 태도가 흐리터분하여 분명하지 않다.’, ‘애매하다’는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하다.’, ‘두루뭉술하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철저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로, 모두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다.

| 오답 확인 |

③ ‘어색하다’는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 마주 대하여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분명하지 않은’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1 〈보기〉에서 주인공의 혼인은 계모와의 갈등이 심해지는 계기가 되며 이로 인해 가문 전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였고, ‘초래되다’는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다.’라는 의미이므로 ‘일이나 사건 따위가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기되다’를 활용한 ⑤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12 ②는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였다는 의미이므로 ‘대응하다’가 적절하다.

01 ~ 04 종합 문제

본문 28쪽

01 왜곡하면

02 고려하여

03 옹호하는

04 예측하다

05 소통

06 추리

07 ①

08 ⑤

09 ③

10 ③

11 ③

07 ①에 어울리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이라는 의미의 ‘관념’이다.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는 의미이다.

08 ‘규율’은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보기.’라는 의미이다.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자율’이다.

09 이 글의 첫 문장은 현대의 많은 작가들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자신이 알게 되고’ 해석한 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의미이므로 ⑦은 ‘인식한’이 적절하다. 또한 새, 물고기 등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단순화하였다고 하였으므로 ⑨은 ‘구체적’이 적절하다.

10 ⑤ ‘축소하다’와 ⑥ ‘확대하다’는 의미 관계가 반대이다. ③의 ‘초래되다’는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다.’라는 의미이고, ‘수반되다’는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다.’라는 의미이다. 두 단어 모두 인과 관계를 포함하지만 ‘초래되다’는 원인이 결과를 직접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수반되다’는 어떤 현상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의 의미가 있어 두 단어는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Day 05 어휘 풀리스

1 악용

2 오용

3 남용

본문 31쪽

Day 06 어휘 풀리스

1 철들

2 철부지

본문 35쪽

10 분 테스트

본문 32쪽

- | | | | |
|--------|---------|---------|-------|
| 01 결핍 | 02 해류 | 03 신진대사 | 04 질환 |
| 05 부작용 | 06 분비되다 | 07 작용 | 08 궤도 |
| 09 질병 | 10 기후 | 11 ④ | 12 ⑤ |
| 13 ① | 14 ⑤ | | |

10 분 테스트

본문 36쪽

- | | | | |
|-------|-----------|-------|-------|
| 01 경관 | 02 연교차 | 03 증식 | 04 요인 |
| 05 신문 | 06 습도, 하루 | 07 소멸 | 08 절경 |
| 09 서식 | 10 ② | 11 ① | 12 ③ |
| 13 ④ | | | |

07 ‘작용’은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광합성으로 녹말을 만드는 것’에 어울리는 어휘이다.

08 ‘궤도’는 ‘수레가 지나간 바퀴자국이 난 길.’, ‘일이 발전하는 본격적인 방향과 단계.’, ‘기차나 전차의 바퀴가 굴러가도록 레일을 깔아 놓은 길.’, ‘행성, 혜성, 인공위성 따위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른 천체의 둘레를 돌면서 그리는 곡선의 길.’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07 ‘종이 신문이 사라져 없어졌다.’는 내용이므로, ‘사라져 없어짐.’을 의미하는 ‘소멸’이 적절하다.

08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해가 질 무렵 바닷가의 풍경’에 관한 표현이므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경치.’를 의미하는 ‘절경’이 적절하다.

09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관한 말이므로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의미하는 ‘서식’이 적절하다.

10 ‘폐사하다’는 ‘주로 짐승이나 어폐류가 갑자기 죽게 되다.’라는 의미이므로 ‘가축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로 쓸 수 있다.

11 문맥상 ‘살포하다’가 ‘액체, 가루 따위를 흘러 뿌리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뿌리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2 ‘노출되다’는 ‘겉으로 드러나다.’의 뜻을 지녔으므로 ‘드러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3 ‘서식지’는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곳.’의 뜻을 지닌다.

| 오답 확인 |

① ㉠은 문맥상 ‘식물에서 나온 씨 또는 씨앗.’을 의미한다.

③ ㉡은 문맥상 ‘씨앗에서 싹이 틈.’을 의미한다.

④ ㉢은 문맥상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짐. 또는 생물의 한 종류를 아주 없애 버림.’을 의미한다. ‘파괴되어 없어짐.’은 ‘파멸’의 뜻이다.

⑤ ㉣은 ‘일정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여러 생물들이 서로 적응하고 관계를 맺으며 어우러진 자연의 세계.’를 의미한다. ‘식물이 저절로 나서 자라는 땅.’은 ‘자생지’이다.

Day 07 어휘 풀리스

본문 39쪽

1 이따가

2 있다가

10 분 테스트

본문 40쪽

01 구체적

02 파급력

03 억류되다

04 명료

05 치명적

06 유출

07 전문성

08 양상

09 억압

10 ②

11 ⑤

12 ③

13 ①

06 ‘유출’은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러 내보냄.’을 뜻한다. 제시된 문장에서 ‘기름이 바다로 흘러 나감.’으로 쓰였다.

07 ‘전문성’은 ‘전문적인 성질, 또는 특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강연자가 지닌 강연 내용에 대한 전문적 특성’의 의미로 쓰였다.

08 ‘양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수탉이 증가하는 상태 변화’로 쓰였다.

09 ‘억압’은 ‘자기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름.’을 의미하는 단어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서민들을 억누르는 사회’의 의미로 쓰였다.

10 ‘긴밀하다’는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다.’는 뜻이므로, ‘아주 가깝게 맞닿은 관계에 있다.’는 뜻이 있는 ‘밀접하게’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1 ‘인위적’은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것.’을 의미하는 ‘자연적’과 의미가 반대된다.

12 ‘영구적’은 ‘오래도록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짧은 한때의 것.’을 뜻하는 ‘일시적’과 의미가 반대된다.

13 ㉠은 ‘사람이 어떤 곳으로 모여든.’을 의미하고, ㉡은 ‘일의 이치로 보아 옳지.’를 의미한다.

Day 08 10분 테스트

본문 44쪽

01 ㉡

02 ㉠

03 ㉢

04 생각

05 근거

06 지식

07 ×

08 ○

09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10 ③

11 ②

07 ‘도용’은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몰래 씀.’을 의미한다.

10 ㉠은 ‘근거’가 아니라 ㉡~㉢을 근거로 하는 ‘주장’에 해당한다.

11 이 글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상황과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을 근거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오답 확인 |

①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는 말하고 있으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③, ④, ⑤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고, 독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글이다.

5~8 종합 문제

본문 46쪽

01 결핍

02 양상

03 관점

04 서식

05 증식

06 ③

07 ②

08 ⑤

09 ③

01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제시된 문장은 ‘영양 부족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02 ‘양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제시된 문장은 ‘단어의 의미가 확대, 축소, 이동하며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03 ‘관점’은 ‘대상을 보고 생각하는 태도와 방향.’을 뜻하는 단어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이성을 중시하는 태도와 방향에서 진리를 찾으려 한다는 의미이다.

04 ‘생물들이 살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서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서식’은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뜻하는 단어로 ‘환경’이라는 말과 잘 어울린다.

05 ‘증식’은 ‘생물이나 조직 세포 따위가 세포 분열을 하여 그 수를 늘려 감. 또는 그런 현상.’의 뜻이 있는 단어로, 제시된 문장은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 스스로 늘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다.

06 ③의 ‘연교차’는 ‘1년 동안 측정한 기온, 습도 따위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오늘’의 옷차림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하루의 기온 차가 커서 겉옷을 챙기는 상황에는 ‘일교차’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망하여 없어지다.’는 ‘멸종하다’가 아니라 ‘멸망하다’이다. ‘멸종’은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짐. 또는 생물의 한 종류를 아주 없애 버림.’을 의미한다.

| 오답 확인 |

① ‘노출되다’는 ‘겉으로 드러나다.’의 뜻이므로 적절하다.

③ ‘분비하다’는 ‘세포에서 만들어진 액체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다.’의 뜻이므로 적절하다.

④ ‘활성화하다’는 ‘사회나 조직 등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다.’의 뜻이므로 적절하다.

④ ‘배경지식’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 있거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의 뜻이므로 적절하다.

08 ‘지구가 태양 주위를 ~ 도는’으로 보았을 때, ‘행성, 혜성, 인공위성 따위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른 천체의 둘레를 돌면서 그리는 곡선의 길.’을 뜻함을 알 수 있다.

09 1문단에서 음력으로는 계절 변화를 알기 어려워 양력으로 절기를 나누었다고 하였으므로 ④에는 ‘정확하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문단 첫 문장에서 절기와 속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⑥에는 ‘밀접’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속담이 생활상이나 사례를 통해 삶의 지혜와 교훈, 공동체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하였으므로 ⑨에는 ‘구체적’이 들어가야 한다.

2 문학

Day 09 어휘 풀리스

본문 51쪽

1 지조

2 절개

10 분 테스트

본문 52쪽

01 곧다

02 누르다

03 만물

04 의지

05 믿음

06 자연

07 솔

08 송죽

09 ②

10 ①

11 ④

12 (1)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2) 만족

09 ‘벗’은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친구’, ‘동무’, ‘봉우’ 등과 바꾸어 쓸 수 있다. ‘지인(知人)’은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

10 ‘춘하추동’은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철.’을 의미하므로 ‘사시(四時)’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계절(季節)’은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일 년을 구분한 것이다.

11 ‘암흑’은 ‘어둡고 깜깜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는 ‘밝고 환함. 또는 밝은 미래나 희망을 상징하는 밝고 환한 빛.’이라는 의미의 ‘광명’이다.

12 (1) 이 시의 화자는 자연에서 찾은 수석, 송죽, 달을 자신의 다섯 벗으로 소개하고 있다.

(2) 화자는 다섯 벗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하였다.

Day 10 어휘 풀리스

본문 55쪽

1 받쳐

2 바랜

- | | | | |
|--------|-------|--------|---------|
| 01 운수 | 02 감정 | 03 바람 | 04 왁자지껄 |
| 05 나비잠 | 06 흉물 | 07 불우불 | 08 자락 |
| 09 ① | 10 ③ | 11 ② | 12 ① |

04 여학생들 여렷이 시끄럽게 지껄이며 들이닥치는 상황과 잔치로 인해서 여렷이 떠들고 소란스러운 상황이므로 ‘왁자지껄’이 적절하다.

09 ‘칠칠맞지 못하다’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아무 지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는 ‘아무지다’이다.

10 제자들이 스승을 마음속으로 공경하여 떠받들었다는 의미이므로, ‘공경했고’와 바꾸어 쓸 수 있다. ‘봉양하다’는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다.’라는 뜻이다. (예 자손이 부모를 봉양하다.)

11 상수가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는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래고’가 아니라 ‘바라고’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라는 뜻이다.

12 앞뒤 문맥으로 보아, ⑦은 ‘받치다’의 활용형으로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이다. ②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다.’, ③은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④는 ‘비나 햇빛과 같은 것이 통하지 못하도록 우산이나 양산을 펴 들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Day

11

10분 테스트

- | | | | |
|------|-------|-------|------|
| 01 ⑤ | 02 ⑦ | 03 ⑤ | 04 × |
| 05 × | 06 직유 | 07 은유 | 08 ○ |
| 09 × | 10 운율 | 11 상징 | 12 ② |

04 ‘산들산들’, ‘조곤조곤’, ‘팔짝팔짝’은 모양을 흉내 낸 말로, ‘의태어’이다.

05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마치 사람이 느끼거나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은 ‘의인’이다.

06 ‘~같이’를 사용하여 ‘낮’을 ‘옛날’에 빗대고 있으므로 직유가 사용되었다.

07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교실’을 ‘장미밭’에 빗대고 있으므로 은유가 사용되었다.

09 ‘이슬 같은 보람’에서 ‘보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원관념이고, ‘이슬’이 보조 관념이다.

10 1연에서는 ‘~를 ~ (어)서 ~ (으)로’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3연에서는 ‘~가 ~고 / ~ (이)가 ~고’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2 ‘배춧잎 같은 발소리’에서 ‘배춧잎’은 지친 엄마의 발걸음 소리를 빗댄 대상이다.

| 오답 확인 |

③ ‘윗목’은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이라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이다. 그래서 차갑고 서글펐던 화자의 어린 시절을 차가운 느낌을 주는 ‘윗목’에 비유하고 있다.

④ 추운 방에서 외롭게 엄마를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을 지은 지 오래되어 다 식은 ‘찬밥’에 비유하고 있다.

Day

12

어휘 플러스

1 마름

2 지주

- | | | | |
|---------|--------|-----------|-------|
| 01 입신양명 | 02 마름 | 03 대감, 대감 | 04 동냥 |
| 05 유식 | 06 증손녀 | 07 거리 | 08 ② |
| 09 ② | 10 ④ | 11 ③ | |

08 ‘움큼’은 ‘손으로 한 줌 움켜쥘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이다. ‘한 손에 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인 ‘주먹’의 준말인 ‘줌’과 바꾸어 쓸 수 있다. ‘되’는 부피의 단위로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쟀 때 쓴다.

09 ‘서얼’은 양반의 후손 중에서 첨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이르는 말로, 본처가 낳은 아들을 뜻하는 ‘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0 ‘돈이나 곡식,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뺏.’을 뜻하는 ‘구걸’은 ‘거지나 동냥아치가 돌아다니며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비는 일.’을 이르는 ‘동냥’과 바꾸어 쓸 수 있다.

11 ①과 ③은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확인 |

①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부채 따위를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 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4 어휘 플러스

본문 71쪽

1 쫓아서

2 쫓아

10 분 테스트

본문 72쪽

01 의연하고

02 쫓다가, 쫓아

03 임무

04 거역

05 말

06 양심

07 대항

08 허세

09 ①

10 ①

11 ④

Day 13 어휘 플러스

본문 67쪽

1 월일

2 월지

10 분 테스트

본문 68쪽

01 무색할 02 무안했다 03 어색하다 04 시치미

05 월지 06 근성 07 월일 08 푸념

09 체면 10 ② 11 ① 12 ①

13 ②

04 ‘시치미’는 ‘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체,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태도’를 뜻한다.

10 ‘보복’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양값음’이다. 둘 다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는 의미이다. ‘보답’은 ‘남의 호의나 은혜를 갚음.’을 뜻한다.

11 ‘언행이나 태도가 의젓하고 신중하게’를 뜻하는 ‘점잖게’가 ‘말이나 하는 짓이 야단스럽고 방정맞게’를 뜻하는 ‘호들갑스럽게’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방정맞게’, ‘경망스럽게’, ‘야단스럽게’는 ‘호들갑스럽게’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

12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 보는 것.’이라는 의미의 ‘공상적’과 의미가 반대인 단어는 ‘현실적’이다.

13 A는 침략한 적군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나 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미이므로, ⑦에는 ‘무모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9 ‘낫잡아’는 ‘사람을 만만히 여기고 함부로 낫추어 대하여’라는 뜻으로 ‘얕잡아’와 바꾸어 쓸 수 있다. ‘겨루어’는 ‘서로 벼티어 승부를 다투어’라는 뜻이다.

10 ‘사로잡혀’는 ‘생각이나 마음이 온통 한곳으로 쏠리게 되어’라는 뜻으로 ‘매료되어’와 바꾸어 쓸 수 있다. ‘매몰되어’는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어’라는 뜻이다.

11 ‘천진난만하다’는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꾸밈이 없이 그대로 나타날 만큼 순진하고 천진하다.’라는 의미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간사한’이다.

C9~14 종합 문제

본문 74쪽

01 의연하다 02 감미롭다 03 불길하다 04 무모하다

05 ⑤ 06 ④ 07 ② 08 ⑥

09 ③

05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했으므로, ‘일탈’이 쓰여야 적절하다. ‘이탈’은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감.’을 의미한다.

06 ‘허세’의 뜻은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이다.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는 ‘기세’이다.

07 ⑦에서는 연결어 ‘~같이’를 활용하여 원관념인 ‘달’을 보조 관념인 ‘얼음’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가 사용되었다.

| 오답 확인 |

① 의인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③ '달'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며, 상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④ ㉠에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휘영청'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이'를 활용해서 직접 연결하고 있다.

08 '절개'는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꾱꼿한 태도.'를 이르는 말로,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끌까지 지켜 나가는 꾱꼿한 의지. 또는 그런 기개.'를 이르는 말인 '지조'와 서로 의미가 비슷하다.

- 09** ①: 이 시에서 추운 계절을 이겨 내는 강인한 속성이 있는 시적 대상은 '옥설'에 눌려도 푸름을 유지하는 '대나무'이다.
 ②: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한다. '서술자'는 소설에서 작가를 대신하여 이야기를 전해 주는 이를 말한다.
 ③: '깨끗한 그 빈 마음'은 원관념인 대나무를 빗댄 보조 관념이다. 화자는 대나무의 속이 빈 속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대나무(원관념)를 내면이 '깨끗한' 인품(보조 관념)에 비유하고 있다.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시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인 대나무를 추상적인 개념인 깨끗한 인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상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Day 15 어휘 풀리스

본문 77쪽

1 안절부절 2 안절부절못했다

10분 테스트

본문 78쪽

01 처음 02 의견 03 상황 04 그림
 05 간밤 06 기슭 07 예시 답안 그는 극심한
 가뭄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08 예시 답안 할아버지께
 서는 동생이 보는 앞에서 형에게 면박을 주셨다. 09 ①
 10 ① 11 ② 12 안절부절못하고

09 '입수'는 '손에 넣다.'의 의미로, '정보를 입수하다.'는 정보를 손에 넣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단어는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지다.'라는 의미의 '획득하다'이다.

10 '배회하다'는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를 의미하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것은 '돌아다니다'이다.

11 '착수'는 '어떤 일에 손을 댘.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이라

는 의미로, 이와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는 '일을 끝냄.'이라는 의미의 '종결'이다.

12 '안절부절하다'는 비표준어이므로, '안절부절못하다'로 써야 한다.

Day 16 어휘 풀리스

본문 81쪽

1 소자 2 소인

10분 테스트

본문 82쪽

01 기약 02 인륜 03 대성통곡 04 슬하
 05 신하 06 임금 07 자기 08 천생
 09 ② 10 ① 11 ④

09 '배필'은 '부부로서의 짹'을 의미하므로 '배우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배우자'는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을 의미한다.

10 '책망'은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을 의미하므로 '질책'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질책'은 '꾸짖어 나무름.'이라는 의미이다.

11 길동의 말은 문맥상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로 태어나서 공자와 맹자를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을 하는 방법이라도 익혀 동정서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오래도록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라는 의미이다. ② '병법'은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Day 17 10분 테스트

본문 86쪽

01 ㉡ 02 ㉡ 03 ㉠ 04 개연성
 05 허구성 06 ○ 07 ○ 08 ×
 09 ○ 10 ⑤ 11 배경

06 이 글에서 서술자는 '나'이며 이야기의 안에 위치하므로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이다.

07 '나'와 '젊은 여자'가 대립하고 있으므로 '나'와 '젊은 여자'

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적 갈등이란,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등 인물과 외부의 대상이 대립할 때 일어나는 갈등을 말한다.

08 이 글에서 ‘소녀’는 혼자 물장난을 하고 있다. ‘소년’은 물장난하는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09 ‘공간적 배경’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인물이 활동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나고 있으므로 제시된 부분에서 ‘개울가’가 공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0 이 글에서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위치한다. ‘나’, ‘우리’와 같은 말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서도 3인칭 시점의 소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확인 |

① ‘한 생원’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허구의 존재로, 작가와는 별개이다.

③ ‘한 생원’은 소설의 인물이지 서술자가 아니다.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이 아니며 작품의 밖에 존재한다.

④ ‘한 생원’이 ‘구장’을 찾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11 ‘해방 후’는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적 환경이므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된다.

10 ‘하소연’은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따위를 말함.’을 의미하므로 ‘넋두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넋두리’는 ‘불만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소연하는 말’을 의미한다.

11 ‘따뜻한 기운’을 의미하는 ‘온기’의 반대말은 ‘찬 기운’을 의미하는 ‘냉기’이다.

12 ‘기름진 땅’에서 ‘기름지다’는 ‘땅이 매우 걸다.’를 의미하므로 ‘비옥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비옥하다’는 ‘땅이 걸고 기름지다.’를 의미한다.

Day 19 10분 테스트

본문 94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대화	10 독백	11 ○	12 ✗
13 ○	14 ③		

11 수필에서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12 이 글에서는 적은 수의 사람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이 우정보다 소중함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3 문체란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장의 특색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문장이 비교적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점을 문체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4 동작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입장 및 퇴장을 지시한다. ‘군사들을 쑥 훑고는’과 ‘망설인다’는 등장인물의 동작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동작 지시문’에 해당한다.

| 오답 확인 |

① ‘S#52. 우수영. 마당. (밤).’과 같은 장면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임을 알 수 있다.

② 방백이란 ‘관객에게는 들리나 무대 위의 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대사.’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방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④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⑤ ‘붓지 않고 뭐 하느냐!’에서는 이순신의 단호한 성격이 드러난다.

Day 18 어휘 풀리스

본문 89쪽

1 쇠러 2 새도록 3 새웠다

10 분 테스트

본문 90쪽

01 왕래	02 응시	03 자각	04 집중
05 짐작	06 조심	07 공동체	08 길쌈
09 ①	10 ①	11 ②	12 ③

09 ‘정적’은 ‘고요하여 괴괴함.’을 의미하므로 ‘적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적막’은 ‘고요하고 쓸쓸함.’을 의미한다.

- | | | | |
|-------|-------|---------|-------|
| 01 사태 | 02 합의 | 03 기척 | 04 곡절 |
| 05 ③ | 06 ④ | 07 거스름돈 | 08 ④ |

01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상황. 또는 벌어진 일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사태’가 적절하다.

02 두 나라가 경제 분야에서 긴밀하게 힘을 합하여 조화를 이루기로 협력하여 의논했다는 의미이므로 ‘합의’가 적절하다.

03 집 안에서 ‘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알 만한 소리나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기척’이 적절하다.

04 그가 갑자기 이사를 간 데에는 아마도 틀림없이 순조롭지 아니하게 얹힌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곡절’이 적절하다.

05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쇠다’이다. ‘환갑을 쇠려’가 적절한 표현이다.

06 ④는 ‘이웃끼리 야별치고 인정이 없게’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정이 두텁고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후박하다’이다.

07 이 글의 앞부분에서 불안해하는 문기의 현재 모습을 제시한 뒤, 문기가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기를 사러 갔다가 고깃간 주인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과거의 일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앞부분에 제시된 문기의 불안 심리가 거스름돈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8 이 글은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구성 방식은 액자식 구성 방식이다.

| 오답 확인 |

① 문기는 공과 쌍안경이 사라지자 누가 가져갔는지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② 시간적 배경이 현재에서 며칠 전의 일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③ 이 글은 인물과 배경,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발단 단계에 해당한다.

⑤ 이 글에는 ‘지전, 고깃간, 둥구미, 은전’ 등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타나 있다.

3 듣기·말하기, 매체, 문법

- | | | | |
|----------|---------|---------------------|-------|
| 01 상황 맥락 | 02 언어폭력 | 03 토의 | 04 문장 |
| 05 합의 | 06 ② | 07 발언 | 08 대안 |
| 09 경청 | 10 ② | 11 ㉠: ㉡, ㉡: ㉠, ㉢: ㉢ | |

06 ‘존중’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이라는 뜻이며, 의미가 반대되는 단어는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함,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김.’의 뜻을 지닌 ‘무시’이다.

10 ‘협력’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의 뜻이므로, ‘힘을 합쳐 서로 도울’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 | | | |
|--------|----------|--------|-------|
| 01 공포 | 02 상호 작용 | 03 생산자 | 04 매체 |
| 05 초상권 | 06 초상권 | 07 저작권 | |
| 08 저작권 | 09 ④ | 10 ① | 11 ④ |
| 12 ④ | | | |

05~08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 담긴 초상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나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09 ‘유포’는 ‘세상에 널리 퍼짐, 또는 세상에 널리 퍼뜨림.’을 뜻하는 말이다. 사실이나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동에는 ‘세상에 널리 알리다.’를 뜻하는 ‘공지하다’ 등이 적절하다.

10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생각을 보았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사회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뜻하는 ‘공론’이 적절하다.

11 ‘공적’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을 의미하므로 이와 뜻이 반대되는 말은 ‘개인에 관계된.’을 뜻하는 ‘사적’이다.

12 대중 매체란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 자본과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제작한 정보를 전달할 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Day 22 10분 테스트

본문 110쪽

- | | | |
|---------------|--------|--|
| 01 ○ | 02 × | 03 ○ |
| 04 변화, 역할, 의미 | 05 부사 | 06 명사 |
| 07 동사 | 08 감탄사 | 09 조사 |
| 10 가리다 | 11 활용형 | 12 · 단일어: 국, 떡 · 합성
어: 떡국, 시루떡 · 파생어: 개떡, 떡보 13 ④ |
| 14 ⑦ | | |
| 15 ④ | | |

4 관용어, 속담, 한자 성어

Day 23 10분 테스트

본문 120쪽

- | | | | |
|------|------|------|-------|
| 01 ④ | 02 ④ | 03 ⑦ | 04 마음 |
| 05 ○ | 06 × | 07 ○ | 08 ⑦ |
| 09 ④ | 10 ④ | 11 ④ | 12 ② |
| 13 ④ | 14 ① | | |

10 ‘가리지만’의 기본형은 어간 ‘가리–’에 기본형 어미 ‘–다’를 붙인 ‘가리다’이다.

11 ‘피네’는 기본형 ‘피다’에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네’가 붙은 활용형이다.

12 ‘국’과 ‘떡’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떡국’은 어근 ‘떡’과 ‘국’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이이고, ‘시루떡’은 ‘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을 뜻하는 어근 ‘시루’와 ‘떡’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개떡’은 ‘질이 떨어지는.’의 뜻을 지닌 접사 ‘개–’와 어근 ‘떡’을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이고, ‘떡보’는 어근 ‘떡’과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을 뜻하는 접사 ‘–보’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이다.

15 ‘희생 번트’와 ‘스퀴즈 번트’는 야구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특정 집단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20~22 종합 문제

본문 112쪽

- | | | | |
|-------|-----------|-------|-------|
| 01 협력 | 02 존중 | 03 발언 | 04 ① |
| 05 ③ | 06 토의 | 07 안건 | 08 대안 |
| 09 ② | 10 상호 작용적 | | |

04 ‘공포’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의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줌.’이라는 뜻의 ‘배포’ 등이 적절하다.

05 ‘한국어 속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외래어 느낌 없이 우리 말처럼 쓰이는 말.’은 ‘귀화어’이다.

09 ‘댓글’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 ‘명사’로, 용언이 아니라 체언에 해당되며,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불변어이다.

Day 24 10분 테스트

본문 126쪽

- | | | | |
|--------|------|------|------|
| 01 ④ | 02 ⑦ | 03 ④ | |
| 04 말조심 | 05 ○ | 06 × | 07 × |
| 08 ④ | 09 ④ | 10 ④ | 11 ④ |
| 12 ⑦ | 13 ① | 14 ⑤ | 15 ③ |

13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 순식간에 퍼진다.'라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이르는 말인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가 적절하다.

14 선생님이 그 학생을 지목하여 창문을 깨뜨렸는지 물은 것도 아닌데, 창문을 깨뜨린 아이가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며 변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도둑이 제 발 저리다'이다.

15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적절하다.

Day 25 10분 테스트

본문 132쪽

- | | | | |
|---------|---------|---------|------|
| 01 ① | 02 ② | 03 ③ | 04 ⑦ |
| 05 고진감래 | 06 기사회생 | 07 주객전도 | |
| 08 정저지와 | 09 배은망덕 | 10 호가호위 | |
| 11 ③ | 12 ③ | 13 ② | 14 ③ |

13 '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음을 이르는 말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나머지 한자 성어는 모두 친구, 우정과 관련이 있는 한자 성어이다.

| 오답 확인 |

- ① 막역지우(莫逆之友):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
④ 지란지교(芝蘭之交): 지초(芝草)와 난초(亂草)의 교제란 뜻으로, 벗 사이의 맑고도 고귀한 사귐을 이르는 말.

14 이 시조는 온 세상이 모두 세조를 섬길지라도 자신은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는 성삼문의 굳은 의지를 소나무를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세한송백'이 적절하다.

이 봄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까 하니

극한적 상황 설정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에 낙랑장송(落落長松)이 되어 있어 굳은 절개와 지조를 상징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夜青青)하리라
수양대군의 드세

시류에 훙슬리지 않고 절개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의지

- 주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
- 특징: ① 극한적 상황의 가정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② 충절과 절개를 상징하는 전통적 소재인 소나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조를 부각함.

23~25

종합 문제

본문 134쪽

- | | | | |
|---------|---------|---------|------|
| 01 마음 | 02 발 | 03 입 | 04 눈 |
| 05 가시 | 06 ② | 07 ③ | |
| 08 연목구어 | 09 일구이언 | 10 조삼모사 | |
| 11 표리부동 | 12 견강부회 | 13 ② | 14 ③ |
| 15 ② | 16 ③ | | |

06 '등잔 밑이 어둡다'는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이므로 주어진 상황에 사용될 만한 속담으로 적절하지 않다.

07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 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금의환향'이다.

14 '손(이) 맞다'는 '함께 일할 때 생각이나 방법 등이 서로 잘 어울리다.'를 의미한다. '일이 손에 익숙해지다.'를 의미하는 관용어는 '손(에) 익다'이다.

15 '청출어람'은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제지간이나 선후배 사이와 관련 있는 말이다. 나머지는 모두 친구, 우정과 관련이 있는 한자 성어이다.

16 '해'는 '새장이나 닭장 속에 새나 닭이 올라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막대.'로 새가 쉴 수 있게 하는 구조물이다. 나머지 관용어는 ②과 유사한 '궁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의 의미이다.

작자 미상, 〈김학공전〉

- 주제: 김학공의 복수와 삶.
- 특징: 신분제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조선 후기 사회상이 반영됨.
- 전체 줄거리: 재상 집안의 귀한 아들인 김학공은 아버지가 죽은 후 집 안 노비들의 봉기로 재산을 잃고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진다. 아버지의 친구 황승상의 도움으로 성장해 과거에 급제한 학공은 노비들에게 복수를 하고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내 별선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

워크북

Day 01

워크북 2쪽

- | | | |
|--------|--------|------------------|
| 01 ① | 02 ⑦ | 03 (1) 전통 (2) 인문 |
| (3) 풍자 | 04 도리 | 05 비판 06 과장 |
| 07 ③ | 08 정체성 | 09 무형유산 10 ③ |

07 문맥상 ‘창의적인’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을 띤’ 의미로 쓰이고 있다.

| 오답 확인 |

- ① ‘모방적인’에 해당하는 뜻풀이이다.
- ② ‘획일적인’에 해당하는 뜻풀이이다.
- ④ ‘평범한’에 해당하는 뜻풀이이다.
- ⑤ ‘진부한’에 해당하는 뜻풀이이다.

08 문맥상 오랜 시간 자아를 탐구하며 자신의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확립했다는 의미이므로 ‘정체성’이 적절하다.

09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된 전통 공연이나 전통 기술, 생활 관습 따위의 국가유산.’은 ‘무형유산’이다.

10 ③의 ‘기호’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하고, ①, ②, ④, ⑤의 ‘기호’는 ‘즐기고 좋아함.’을 의미한다.

Day 02

워크북 4쪽

- | | | |
|------------------|--------|-----------|
| 01 효율적 | 02 인공적 | 03 능률적 |
| 04 (1) 규정 (2) 효용 | 05 공신력 | |
| 06 통치 | 07 형벌 | 08 ① 09 ① |
| 10 정화 | 11 가공 | 12 ② |

05 ‘공신력’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표현이 흔히 쓰인다.

06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국가를 도맡아 다스리는 이념으로 삼았다는 의미이므로 ‘통치’가 적절하다.

07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

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 또는 그 제재.’가 무겁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므로 ‘형벌’이 적절하다.

08 ‘납부하다’는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다.’라는 의미이므로, ‘냈다’를 ‘납부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9 ‘구매하다’는 ‘물건 따위를 사들이다.’라는 의미이므로, ‘사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0 식물이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순하거나 더운 것을 깨끗하게 함.’을 뜻하는 ‘정화’가 적절하다. ‘순화’는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함.’을 의미한다.

11 ‘가공’은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임.’을 의미하므로, 우유를 ‘가공’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12 ⑦ ‘공정’은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하나하나의 작업 단계’를 의미하는 말로, ②의 ‘공정’과 의미가 같다.

| 오답 확인 |

- ①, ③, 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의미한다.
- ④ ‘공정’은 ‘텅 빈 뜰’을 의미한다.

Day 03

워크북 6쪽

- | | | |
|--------|-------|-----------|
| 01 적막감 | 02 편견 | 03 인식 |
| 04 자만심 | 05 ① | 06 ⑦ 07 ⑧ |
| 08 ⑨ | 09 ② | 10 기능할 |
| 11 의식적 | 12 ⑤ | 13 예측 |

04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이다. ‘자만심에 빠지다.’, ‘자만심을 버리다.’와 같은 표현이 흔히 쓰인다.

05 ⑦은 디자인이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이므로 ‘주관적’이 적절하다.

06 ⑦은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기엔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이므로, ‘단정적’이 적절하다.

07 ⑨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자기 스스로 나아가 행하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자발적’이 적절하다.

08 ⑨은 수업 방식이 지나치게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방식이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진다는 의미이므로 ‘강제적’이 적절하다.

09 ‘추리’의 사전적 의미는 ②이다. ①은 ‘추측’, ③은 ‘유추’의 의미이다.

10 ‘기습하다’는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제시된 문장은 ‘속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11 ‘의식적’은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자각하면서 일부러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제시된 문장은 ‘일부러라도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12 ‘융통성’은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를 의미한다. 따라서 ‘융통성’이 변화하는 시장 적응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⑤의 문장은 적절하지 않다.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융통성’과 반대되는 의미인 ‘경직성’이다.

13 ‘미리 헤아려 짐작함.’이라는 의미의 ‘예측’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데이터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은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의미이므로 ‘왜곡하다’가 적절하다.

09 ‘경계하다’에는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하다.’,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다.’의 의미가 있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욕심과 경솔함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므로 ④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Day 04

워크북 8쪽

01 태도 02 행동 03 생각

04 (1)옹호 (2)추상적 05 소외된

06 준수하는 07 왜곡하는 08 ① 09 ④

10 관념

04 (1) ‘옹호하다’는 ‘두둔하고 편들어 지키다.’라는 의미이므로, ‘옹호하는 입장’, ‘자유, 권익, 성리학, 사생활 등을 옹호하다’와 같이 쓰인다.

| 오답 확인 |

‘선호하다’는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하다.’, ‘경호하다’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하다.’라는 의미이다.

(2) ‘추상적’은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의 의미로, ‘구체적’과 반대되는 의미로 쓰인다.

| 오답 확인 |

‘상습적’은 ‘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 ‘구체적’은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05 ‘소외되다’는 ‘어떤 무리에서 기피되어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된다.’라는 의미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Day 05

워크북 10쪽

01 해류 02 기후 03 신진대사 04 작용

05 부작용 06 탈선 07 ③ 08 ①

09 분비한다 10 흡수하는 11 활성화하여

12 ② 13 궤도

04 문맥상 환경적 요소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므로,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작용.’이 적절한 단어이다.

05 ‘약이 지닌 그 본래의 작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적절한 단어이다.

06 ‘말이나 행동 따위가 나쁜 방향으로 빗나감.’을 의미하는 ‘탈선’이 적절한 단어이다.

07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을 뜻하는 ‘결핍’이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단어이다.

| 오답 확인 |

② 결손: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 되어서 불완전함.

08 ‘좋은 요소를 받아들이다.’를 뜻하는 ‘섭취하다’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단어이다.

09 침샘에서 침을 내보낸다는 내용이므로 ‘세포에서 만들어진 액체가 세포 밖으로 내보내지다.’를 뜻하는 ‘분비하다’가 적절한 단어이다.

| 오답 확인 |

• 배설하다: 생물체가 영양소를 섭취한 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다.

• 분출하다: 액체나 기체가 세차게 뿜어져 나오다.

10 먼지를 빨아들인다는 내용이므로 ‘빨아서 거두어들이다.’를 뜻하는 ‘흡수하다’가 적절한 단어이다.

11 비타민으로 인해 효소의 작용이 발휘된다는 내용이므로

‘생체나 생체 물질이 그 기능을 발휘하다.’를 뜻하는 ‘활성화하다’가 적절한 단어이다.

12 ②의 ‘배출(排出)하다’는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내다.’의 뜻이며, 나머지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인물이 나타나도록 하다.’의 뜻인 ‘배출(輩出)하다’로 다른 뜻의 단어이다.

Day 06

워크북 12쪽

- | | | | |
|---------|--------|-------|-------|
| 01 일교차 | 02 생태계 | 03 경관 | 04 종자 |
| 05 서식 | 06 종식 | 07 파멸 | |
| 08 폐사하다 | 09 ① | 10 살포 | |
| 11 멸종하게 | 12 ① | | |

09 배꼽이 드러나서 보인다는 내용이므로 ‘겉으로 드러나다.’의 뜻을 지닌 ‘노출되다’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단어이다.

10 농약을 뿌린다는 내용이므로 ‘액체, 가루 따위를 흩어 뿐.’의 뜻을 지닌 ‘살포’가 적절한 단어이다.

11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내용이므로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지다.’의 뜻인 ‘멸종하다’가 적절한 단어이다.

12 <보기>에서 ‘발아’는 ‘어떤 사물이나 사태가 비롯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①이 적절하다.

Day 07

워크북 14쪽

- | | | | |
|--------|---------|--------|-------|
| 01 유출 | 02 영구적 | 03 인위적 | 04 양상 |
| 05 유입된 | 06 명료하게 | 07 타당한 | 08 ① |
| 09 ③ | 10 ③ | 11 ③ | |
| 12 억류된 | | | |

05 ‘문화나 사상이 들어오게 되다.’라는 뜻을 통해 불교가 삼국에 들어온 과정이라는 의미가 되는 ‘유입되다’가 적절하며, 과거에 완료된 일이므로 ‘유입된’으로 써야 한다.

06 가르침이 퍼올랐다는 내용이므로 ‘뚜렷하고 분명하다.’의 뜻을 지닌 ‘명료하다’가 적절하며, 뒷말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명료하게’로 써야 한다.

07 주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이므로 ‘일의 이

치로 보아 옳다.’의 뜻인 ‘타당하다’가 적절하며, 뒷말(근거)을 꾸며 주는 형태인 ‘타당한’으로 써야 한다.

Day 08

워크북 16쪽

- | | | | |
|-------|---------------------|---------|-------|
| 01 요약 | 02 근거 | 03 배경지식 | 04 추론 |
| 05 인용 | 06 정보 | 07 관점 | 08 주장 |
| 09 ⑤ | 10 정보, 긍정적, 부정적, 관점 | | |

04 ‘추론’은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09 ④은 주장하는 글의 ‘결론’이므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장을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 관련된 주장은 ‘본론’의 ‘3–나’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다.

Day 09

워크북 18쪽

- | | | | |
|-------|--------|---------|------|
| 01 벗 | 02 만물 | 03 사시 | |
| 04 돌 | 05 대나무 | 06 달 | |
| 07 구천 | 08 영장 | 09 봉우유신 | 10 ② |
| 11 ② | 12 누르러 | 13 지조 | 14 ○ |
| 15 × | 16 × | | |

10 ‘그 장군은 마음에 품은 의지가 흔들림 없이 바른 사람이 라서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했다.’라는 의미로, ‘심지가 곧은’에서 ‘곧은’은 ② ‘마음의 뜻이 흔들림 없이 바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1 ‘빛’은 ‘희망이나 영광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였다. ‘밝고 환함. 또는 밝은 미래나 희망을 상징하는 밝고 환한 빛.’을 의미하는 ‘광명’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2 ‘황금이나 놋쇠의 빛깔과 같이 다소 밝고 탁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누르다’이다. ‘노르다’는 ‘달걀노른자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라는 의미이다.

13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한 의지. 또는 그런 기개.’를 뜻하는 말인 ‘지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정조’는 ‘여자의 곧은 절개.’를 의미한다.

14 <보기>는 한겨울에도 눈서리를 모르고 푸른 소나무를 예찬하고 있다.

15 ‘눈서리’는 한겨울에 내리는 눈과 서리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16 ‘땅속 깊은 맥바다’의 뿌리가 깊고 곧아 눈서리 속에서도 솔잎이 지지 않고 푸르다고 하였으므로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Day 10

워크북 20쪽

- | | | |
|-------------------------|---------|-------------|
| 01 동물 | 02 갓난아기 | 03 자락 |
| 04 모양 | 05 불길한 | 06 공경하는 |
| 07 ③ | 08 ③ | 09 ④ |
| 10 ① | 11 ② | 12 바랜 13 바쳐 |
| 14 칠칠하지(칠칠치) 못한, 칠칠치 않은 | | |

07 ③의 ‘일다’는 ‘곡식이나 사금 따위를 그릇에 담아 물을 붓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2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라는 의미의 ‘바래다’가 적절하다.

13 ‘신이나 웃어른에게 정중하게 드리다.’라는 의미의 ‘바치다’가 적절하다.

14 주어진 문장은 그가 매사 덤벙대어 일 처리를 반듯하고 아무지게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므로 ‘칠칠한’이 아니라 ‘칠칠하지(칠칠치) 못한’, ‘칠칠치 않은’ 등으로 고쳐야 한다.

05 (1) 사람이 아닌 ‘바다’를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 ‘의인’이 쓰였다.

(2) 연결어 없이 원관념인 ‘내 마음’을 보조 관념인 ‘호수’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 ‘은유’가 쓰였다.

09 (1) ‘까만 고약 같은 딱지’에서 ‘딱지’(원관념)를 ‘까만 고약’(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2)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에서 ‘새살’(원관념)을 ‘딱정벌레 날개’(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10 ⑦은 ‘A=B’의 형식으로 이어 주는 말 없이 대상(원관념)을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은유이다.

⑧은 ‘~처럼’이라는 연결어를 활용하여 한 대상(원관념)을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직유이다.

Day 12

워크북 24쪽

- | | | | |
|----------------------------|-------|---------|-------|
| 01 (1) ⑦ (2) ① (3) ⑤ (4) ⑧ | 02 줌 | | |
| 03 증손녀딸 | 04 서얼 | 05 입신양명 | 06 ① |
| 07 열자 | 08 출세 | 09 ④ | 10 초시 |
| 11 동냥 | 12 단위 | | |

04 ‘서얼’은 ‘양반과 양인 여성 또는 양반과 천민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07 ‘열자’는 ‘양반과 천민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의미하며, ‘적자’는 ‘정실이 낳은 아들.’을 의미한다.

09 ④의 ‘부치다’는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라는 의미이다.

| 오답 확인 |

①, ②, ③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의 의미이다.

Day 11

워크북 22쪽

- | | | |
|-----------------------------|------------------|-------|
| 01 화자 | 02 시구 | 03 운율 |
| 04 (1) ⑦ (2) ⑤ (3) ⑦ | 05 (1) 의인 (2) 은유 | |
| 06 의성어, 소리 | 07 의태어, 움직임 | |
| 08 (1) 상징 (2) 운율 (3) 음성 상징어 | 09 (1) ○ (2) × | |
| 10 ⑦: 은유 ⑤: 직유 | | |

Day 13

워크북 26쪽

01 무모하다	02 무색하다	03 겸연쩍다
04 ① ⑤ ⑥ ⑦ ⑧ ⑨	05 양晁음	06 체면
07 푸념	08 ②	09 ②
11 파렴치	12 파렴치한	13 웬일
15 근성	16 ③	14 웬지

08 ‘감미롭다’는 ‘달콤한 느낌이 있다.’라는 의미이므로 ‘달콤한 느낌의’는 ‘감미로운’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3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의 뜻으로, ‘웬일’이 맞고 ‘왠일’은 잘못된 표기이다.

14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이다.

16 ③은 선생님이 목소리에 무게를 잡고 점잖게 타일렀다는 의미이므로, ‘말이나 행동이 찬찬하지 못하고 몹시 까불어서 가볍고 점잖지 못하다.’는 의미의 ‘방정맞다’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

10 ‘빈정대다’는 ‘남을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자꾸 놀리다.’라는 의미로, ‘얄밉게 빈정거리며 자꾸 놀리다.’라는 의미의 ‘비아냥대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2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라는 의미의 ‘좇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6 ‘집착’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쓸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의 의미로, 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부차적인 문제에 대한 집착 등에 쓰이기 적절하다. ‘천착’은 ‘어떤 원인이나 내용 따위를 따지고 파고들어 알려고 하거나 연구함.’이라는 의미이다.

Day 15

워크북 30쪽

01 기습	02 산마루	03 배회하다
04 입수	05 상태	06 합의 07 사태
08 탄식	09 ①	10 ② 11 ②
12 안절부절못했다	13 안절부절	14 설달그름

04 ‘입수’는 ‘손에 들어옴. 또는 손에 넣음.’의 의미가 있다.

05 그의 건강 형편이 매우 좋다는 의미이므로 ‘사물·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의 의미인 ‘상태’가 적절하다.

06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의미인 ‘합의’가 적절하다.

07 더욱 악화되는 대상이 빙칸에 들어가야 하므로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상황. 또는 벌어진 일의 상태.’를 의미하는 ‘사태’가 적절하다.

08 기가 막힌 상황에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상이 빙칸에 들어가야 하므로 ‘한탄하여 쉬는 한숨.’을 의미하는 ‘탄식’이 적절하다.

09 ‘착수’는 ‘어떤 일에 손을 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이라는 의미이므로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는 ‘시작’이다.

10 ‘간밤’은 ‘바로 어젯밤.’을 의미하므로 같은 의미의 단어인 ‘지난밤’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1 ‘경위’는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의미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 ‘자초지종’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2 ‘안절부절하다’와 ‘안절부절못하다’ 중 ‘안절부절못하다’만 표준어이다.

Day 14

워크북 28쪽

01 우격다짐	02 양잡다	03 이탈
04 사명감	05 도덕심	06 양심 07 기만
08 가책	09 ①	10 ② 11 ①
12 쫓는	13 의연하게	14 주워섬기며
15 허세	16 집착	

03 ‘이탈’은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가다.’의 의미로, ‘궤도 이탈’, ‘차선 이탈’, ‘통신사 이탈’ 등과 같이 쓰인다.

07 ‘기만’은 ‘남을 속여 넘김.’이라는 의미이다.

09 의병들은 수도 적고 무기도 보잘것없었지만 끝까지 굽히거나 지지 않으려고 맞서서 버티거나 항거하였다라는 의미의 문장이므로 ‘대항’과 바꾸어 쓸 수 있는 ‘저항’이 적절하다. ‘저항’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않고 거역하거나 버팀.’의 의미이다. ‘투항’은 ‘적에게 항복함.’이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어찌할 바를 몰랐다.’를 수식하는 말로 ‘안절부절’을 쓸 수 있다. ‘안절부절하다’는 표준어가 아니다.

14 ‘섣달그믐’은 하나의 단어로서,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Day 16

워크북 32쪽

- | | | | |
|----------|-------|---------|-------|
| 01 슬하 | 02 언약 | 03 비범하다 | 04 인륜 |
| 05 통탄 | 06 기약 | 07 초월 | |
| 08 질책하였다 | 09 ① | 10 ② | 11 부부 |
| 12 낮추어 | | | |

04 ‘인륜’은 ‘군신·부자·형제·부부 따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하므로 빈칸에는 ‘인륜’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6 주영이가 언제 돌아올지 ‘정한 약속’이 없다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기약’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기약’은 ‘때를 정하여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의미한다.

07 세대를 뛰어넘었다는 의미의 문장이므로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음.’을 의미하는 ‘초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그녀가 자신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며 하는 일이므로 ‘꾸짖어 나무랐다.’를 의미하는 ‘질책하였다’가 적절하다.

09 ‘책망하셨다’는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라는 의미이므로 ‘나무라셨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0 ‘사내대장부’는 ‘대장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12 ‘소자’, ‘소녀’, ‘소인’은 고전 소설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1인칭 대명사이다.

07 이 글에서 서술자는 ‘나’이며 이야기의 안에 위치하므로 1인칭 시점이다.

08 ‘나’와 ‘장인’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나’와 ‘장인’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적 갈등이란,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등 인물과 외부의 대상이 대립할 때 일어나는 갈등을 말한다.

09 ‘봄’과 같은 ‘계절’은 시간적 배경이 된다.

10 이 작품에는 등장인물인 ‘나’와 ‘장인(봉필)’ 사이의 성례를 둘러싼 갈등, 마름인 장인과 소작인인 ‘나’ 사이에서 보이는 계급적 대립과 노동력 착취 같은 사회적 갈등 등이 드러나고 있다.

Day 18

워크북 36쪽

- | | | | |
|---------|--------|-------|-------|
| 01 야박하다 | 02 삼가다 | 03 이름 | 04 목적 |
| 05 억울 | 06 기척 | 07 정적 | 08 금년 |
| 09 자각 | 10 ② | 11 쇠는 | |
| 12 새도록 | 13 새워서 | 14 ③ | |
| 15 왕래하다 | | | |

06 빈칸에는 ‘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알 만한 소리나 기색.’을 의미하는 ‘기척’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응시하며’는 ‘눈길을 모아 한곳을 똑바로 바라보며’를 의미하므로 ‘주시하며’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주시하다’는 ‘어떤 목표물에 주의를 집중하여 보다.’를 의미한다.

11 명절을 ‘보내다’, ‘지내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쇠다’이다.

12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로서 ‘낡이 밝아 오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새다’이다. ‘밤이 새도록’에서 목적어가 없으므로 ‘새우도록’은 쓸 수 없다.

13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서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새우다’이다. ‘밤을 새워서’라는 문장은 ‘밤을’이라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므로, ‘밤을 새서’라고는 쓸 수 없다. ‘새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14 ‘기름진 밭’에서 ‘기름지다’는 ‘땅이 매우 걸다’, ‘비옥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③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음식 찌꺼기를 발효시켜 퇴비로 만들면 비옥한 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Day 17

워크북 34쪽

- | | | | |
|--------|------------|--------|-------|
| 01 대립 | 02 상상력 | 03 현실 | 04 사건 |
| 05 전형적 | 06 개성적 | 07 1인칭 | 08 외적 |
| 09 시간적 | 10 인물, 사회적 | | |

| 오답 확인 |

- ① '기름진 그의 얼굴'에서 '기름지다'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살지고 기름기가 많다.'를 의미한다.
② '음식이 기름진'에서 '기름지다'는 '음식물 따위에 기름기가 많다.'를 의미한다.
④ '화초의 기름진 잎사귀'에서 '기름지다'는 '영양 상태가 좋아서 식물의 잎이나 줄기가 싱싱하고 윤기가 있다.'를 의미한다.

15 '왕래하다'는 '가다'의 의미를 가진 '왕(往)'과 '오다'의 의미를 가진 '래(來)'로 이루어져 '가고 오고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Day 19

워크북 38쪽

- | | | | |
|-------|-------|-------|-------|
| 01 체험 | 02 개성 | 03 여행 | 04 장면 |
| 05 대사 | 06 동작 | 07 해설 | 08 무대 |
| 09 ② | 10 ② | 11 ⑤ | |

09 희곡에서 배경,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동작이나 표정)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글을 지시문라고 한다. '지시문'은 '지문'이라고도 한다.

10 '여정'은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의미한다. '견문'은 '보고 들은 내용'을 의미한다.

11 이 수필은 글쓴이가 자전거를 배우는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진리를 담고 있다. 계속 가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자전거의 원리가 삶의 이치와 같다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담아내고 있다.

| 오답 확인 |

- ① 수필 중 기행 수필에 관한 설명이다.
② 수필에서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③ 인물들 사이의 갈등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소재로 쓴 경수필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중수필의 특징이다.

Day 20

워크북 40쪽

- | | | | |
|-------|---------|-------|-------|
| 01 주의 | 02 발화 | 03 문장 | 04 존중 |
| 05 대안 | 06 발언 | 07 협력 | 08 ① |
| 09 ② | 10 언어폭력 | 11 토의 | 12 안건 |
| 13 상황 | | | |

08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을 뜻하는 '협동'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② '협상'은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의논함.'을 이르는 말이다.

09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을 뜻하는 '조정'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확인 |

①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을 뜻하는 말이다.

Day 21

워크북 42쪽

- | | | |
|----------|--------|--------|
| 01 수단 | 02 전달 | 03 대량 |
| 04 수용자 | 05 초상권 | 06 공익성 |
| 07 저작권 | 08 ② | 09 사적 |
| 11 사적 | 12 공적 | 10 공적 |
| 14 가짜 뉴스 | 13 쌍방향 | |

04 '생산자가 만든 매체 자료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하는 '수용자'가 적절하다.

08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이나 값을, '정보'는 자료를 특정 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처리하여 얻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관계를 지닌 단어의 짝은 '가공하지 않은 덩어리 상태의 광물과, 이것을 연마하고 가공하여 만든 완제품을 가리키는 '원석 - 보석'이다. '여론 - 공론'은 모두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뜻을 지닌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다.

13 '상호 작용적 매체'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거나 관계를 맺으며 쌍방향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매체.'를 이른다.

14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는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정보가 사실 확인 과정 없이 널리 퍼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Day 22

워크북 44쪽

- | | | | |
|-------------------|----------|-------------|-------|
| 01 뜻 | 02 어근 | 03 실질적 | 04 문장 |
| 05 형태, 역할, 의미, 품사 | | 06 전문어 | 07 어휘 |
| 08 새말 | 09 순, 하늘 | 10 떡국, 사과나무 | |
| 11 맨눈, 지우개 | 12 ③ | 13 형태, 형용사 | |

05 단어를 형태, 역할,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를 품사라고 한다.

08 ‘찌는’은 ‘대단하다’의 의미를 지닌 인터넷 새말 ‘쩔다’의 활용형이고, ‘띵작’은 ‘명작’과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새말이며, ‘득템’은 ‘좋은 물건을 얻음.’이라는 뜻으로, ‘획득’과 ‘아이템’이라는 단어의 일부를 합성하여 만든 새말이다.

12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관계는 ‘기본형 – 활용형’이다. ‘되묻다’는 ‘묻다’의 앞에 ‘다시’의 뜻을 더하는 접사 ‘되–’가 결합한 파생어 ‘되묻다’의 기본형으로, ‘묻다’의 활용형이 아니다.

Day 23

워크북 46쪽

- | | | |
|-----------|------------|-----------|
| 01 꼬리를 빼다 | 02 가시 돋다 | 03 직성 풀리다 |
| 04 쥐 죽은 듯 | 05 팔자 늘어지다 | 06 ⑤ |
| 07 ② | 08 ③ | 09 솜 |
| 11 어금니 | 12 ② | 13 ② |

06 ‘아주 드물어 찾기 어렵다.’의 뜻을 지닌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다.

07 ‘말에 따르는 행동은 없으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다.’의 뜻인 ‘입만 살다’가 가장 적절하다.

08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의 뜻을 지닌 ‘발이 묶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12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홀로 소외되어 처량하게 된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낙동갈 오리알’이다.

13 ‘신임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다.’를 뜻하는 ‘눈 밖에 나다’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홀로 용왕을 위해 육지로 가겠다 나선 자라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Day 24

워크북 48쪽

- | | |
|--------------------|--------------|
| 01 고양이 세수하듯 | 02 달걀로 바위 치기 |
| 03 같은 값이면 다흥치마 | |
| 04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낸다 | 05 꿩 먹고 알 먹기 |
| 06 ④ | 07 ⑤ |
| 08 ⑩ | 09 ⑦ |
| 10 ⑨ | 11 ⑤ |
| 12 ③ | |

06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라는 말.’의 뜻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적절하다.

07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가 적절하다.

11 한 번 입 밖으로 낸 말은 어찌할 수 없으니 말을 삼가야 한다는 교훈의 뜻을 지닌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가 적절하다.

12 소년이 돌보던 양들이 늑대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한 상황이므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바람 앞의 등불’이 적절하다.

Day 25

워크북 50쪽

- | | | |
|---------|---------|---------|
| 01 대기만성 | 02 주객전도 | 03 연목구어 |
| 04 동병상련 | 05 타산지석 | 06 정저지와 |
| 07 줄 | 08 입술 | 09 ⑤ |
| 11 ④ | | 10 ⑤ |

09 ‘일거양득’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의미하고, ‘일석이조’는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므로 서로 뜻이 비슷한 관계이다.

10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더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청출어람’이다.

11 ‘각골난망’이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지 아니함.’을 뜻하므로, 지금껏 자신을 잘 돌봐 주던 저공의 은혜를 잊고 어려운 처지의 저공에게 화를 내는 원숭이의 태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가 아니다.